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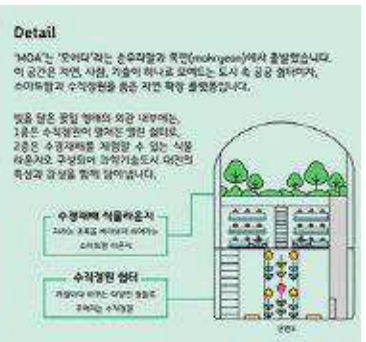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목원대 미술교육과 전지원 학생, 대전디자인어워드 장려상 수상

정바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11-04 16:46



Background
대부분의 공간은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형 공간 설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도시 속 생태 공간을 회복·유지하는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여가를 제공하는 도시 속 휴식공간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이유로 도시 생활상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공 공간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Purpose
이 프로젝트는 도심 속 자연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형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도시 속 생태 공간을 회복·유지하는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여가를 제공하는 도시 속 휴식공간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이유로 도시 생활상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공 공간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Prompt
Futuristic-inspired, futuristic double-story plant lounges are located in lush landscaping parks. The structure consists of petal-shaped glass volumes that radiate symmetrically from a central circular core. Entry point forms a soft curved glass exterior, made from low-reflective smart glass and brushed aluminum frames. The design rests lightly on basic centoured, cantilevered, along taper-like geometries. Wooden board trails gently wrap around the building and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gardens and vegetation. The interior space is filled with plants, warm ambient lighting, and curved interior walkways. The building offers a tranquil and elegant atmosphere, combined with biometric and functional public design.

AI
Midjourney / ChatGPT / Wd

Site
Reference



Detail
MOA는 '모아디'라는 손목시계와 똑같은(Mokryeon)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공간은 자연, 사람, 기술이 하나로 모여드는 도시 속 공공 공간이며, 스마트함과 수직정원을 갖춘 자연 휴식공간입니다.

빛을 담은 공간 형태의 외관 내부에는, 1층은 수직정원이 접착된 열린 오픈터, 2층은 수경재배를 체험할 수 있는 식물 하우스로 구성되어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함께 담아냅니다.

수경재배 식물하우스
2층은 수경재배 체험을 위한 식물 하우스로 구성되어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함께 담아냅니다.

수직정원 오픈터
1층은 수경재배 체험을 위한 열린 오픈터로 구성되어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함께 담아냅니다.

자연친화 오픈터
수경재배 체험형 오픈터

Design Concept
공간 형태의 핵심은 대지의 선을 복원하여 공간을 열어 설계되었습니다. 수직정원과 수경재배 시설은 휴식공간 도시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휴식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자연과 기술, 예술이 공존하는 공공 공간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빛을 담은 도시 속 자연의 확장"



Inside View
▶ 1층
1층은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오픈터입니다. 중앙의 원형 수직정원식물은 식물과 다양한 용도를 관하며, 이를 감싸는 반경이 아닌 자연을 체험합니다. 휴식을 통해 느끼는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함께 담아냅니다.

▶ 2층
2층은 수경재배 체험을 위한 식물 하우스로 구성되어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함께 담아냅니다. LED 조명 아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방향과 위치를 가늠하지 않고도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속 자연의 회복과 감성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목원대 미술교육과 3학년 전지원 학생의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수상작 '도시의 자연을 모으다, MOA' (사진=목원대 제공)

목원대는 미술교육과 3학년 전지원 학생이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생성형 인공지능(AI) 특별주제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공공공간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지원 학생은 미술교육과의 'AI기반 공공디자인' 수업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도시의 자연을 모으다, MOA'로 출품해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AI기반 공공디자인 수업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실습 중심형 교과목이다. 최신 AI생성 도구 (Midjourney, Bing Image Creator 등)를 활용해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AI기술을 단순한 표현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게 미술교육과의 설명이다.

수상작 '도시의 자연을 모으다, MOA'는 대전의 상징인 목련꽃에서 영감을 얻어 유리 패널이 꽃잎처럼 겹겹이 펼쳐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내부에는 식물 라운지와 보행 데크를 연결해 시민이 도심 속 녹색 공간에서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디자인은 지역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현지 교수는 "이번 수상은 생성형 AI도구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교육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AI기반 디자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환경 개선과 공공 가치 창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